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의 롯카쿠도

롯카쿠도(직역하면 “육각형 홀”)는 2년 전에 문을 연 가마고리 호텔의 별관으로 1936년에 지어졌습니다. 단층 목조건축물로 원래 인근 오슈쿠테이 찻집에서 다회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한 대기실과 기념품 가게로 사용되었습니다.

롯카쿠도는 불당을 연상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청색 유약을 바른 타일로 덮인 화려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의 6개의 삼각형 부분은 맨 위를 향해 완만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전체가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호주) 모양의 장식 요소로 덮여 있습니다.

양식화된 소나무 모티브가 지붕의 바닥과 일부 장식 타일, 건물의 못 덮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물은 1982년까지 호텔 부지에 있던 유서 깊은 여관인 도키와칸의 로고였습니다.

롯카쿠도는 1987년 스테이크하우스로 개조되어 다시 문을 열었으며, 철판요리 그릴 앞에 카운터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호텔 정문과 정문 사이의 옆 길에 위치해 있고,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